



여성가족부·교육부

2021년 청소년 인터넷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사전 안내

안녕하십니까?

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매년 ‘청소년 인터넷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’를 실시하고,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**개인·집단상담, 기숙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서비스**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진단조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발한 K-척도, S-척도를 이용하여 자녀들의 인터넷,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측정하며, 이용 정도에 따라 **일반, 주의, 위험**사용자군.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.

진단조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의 주의를 환기해 스스로 인터넷,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으며, 조사 결과 주의를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님(보호자)의 동의를 거쳐 건강한 인터넷·스마트폰의 **사용방법 지도와 전문기관의 상담·치료, 기숙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서비스**를 지원합니다.

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서 힘든 점으로 자녀의 미디어사용 증가가 꼽힐 만큼 이와 관련한 걱정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. 이에 우리 학교에서도 3~4월 중 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하여 **진단조사를 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** 드리며, 조사 결과 **주의, 위험** 사용자군에 해당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“**상담·치료 지원**” 사항 안내 및 “**상담·치료 서비스 제공 동의서**”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또한, 검사 결과 및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1. 3.

옥 산 초 등 학 교 장